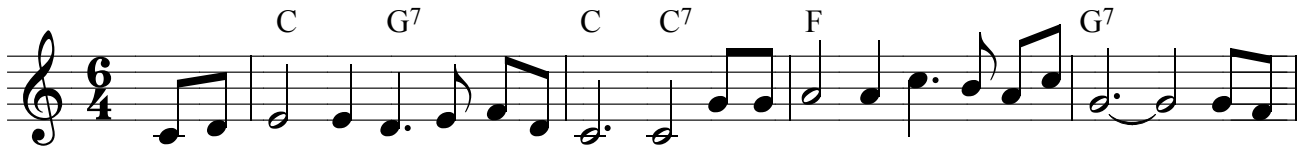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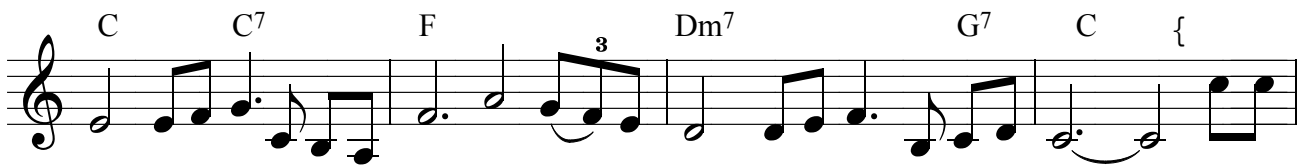
1947

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

김석균



1.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도 쓸쓸한 모습 - 말 없
 2.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- 조용
 3.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- 변창



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 그네 - 정녕
 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- 눈물
 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- 주에



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 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- 의심
 흘리며 참회하였었 네 나의 믿음도 뜨거웠었네 - 그러
 수 따라 항상 살리로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- 할렐



많은도 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날 날 -
 나 죄악이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-
 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-